

## 전체 가구 중 1%는 동성 커플



▲ 2020년 미국 인구센서스 결과 동성 부부와 동성 커플 비율의 합계는 1%에 근접했다. 사진=shutterstock

동성 커플로 구성된 미국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10년마다 실시되는 2020년 미국 인구센서스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억2천700만 미국 가구 중 동성 부부 가구의 비율은 0.5%로 집계됐다. 또 결혼하지 않은 동성 커플의 비율은 0.4%로, 동성 부부와 동성 커플 비율의 합계는 1%에 근접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동성 커플이 가장 많은 곳은 각각 1.3%로 집계된 델라웨어와 오리건이었다. 보수적인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는 0.4%로 동성 커플이 가장 적은 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1.8%, 시애틀이 1.5%로 집계됐고, 뉴욕은 1.1%로 나타났다.

WSJ은 이번 센서스 결과는 지금껏 미국에서 실시된 동성 커플과 관련한 각종 통계 중 가장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전통적인 이성 부부의 비율은 4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센서스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1990년의 경우 이성 부부의 비율은 55.2%로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의 비율은 7%였고, 독신 가구는 27%였다. 나머지는 친척 등과 함께 사는 가구로 조사됐다.

## 대도시 중심부 위축되고 거주 지역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기업 문화가 변화하면서 대도시 주변 거주 지역이 활성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 대도시 중심부는 빈 사무실과 세입자를 찾지 못한 매장 등 공동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주변 거주지역은 생기를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의 경우 도심 맨해튼이 아닌 거주지역 브루클린의 식당, 매장, 체육관 등의 매출이 늘어났다. 재택근무 문화가 정착되면서 도시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도시에서 거주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이동 행태를 분석하는 기업 'Pacerai'에 따르면 LA 도심의



▲ 뉴욕 브루클린 5번가의 주말 식당가 모습. 사진=shutterstock

경우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0.7% 줄었다. 그러나 LA의 거주지역인 사우스글렌데일이나 하일랜드파크 등 대표적 거주지역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음식 배달 행태도 이 같은 추세와 부합한다. 배달앱 그럽허브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뉴욕의 각 기업에서 주문하는 점심 식사의 95%는 맨해튼 중심부에서 나왔지만, 올해는 85%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심 주변 거주지역 인기 현상은 주택임대 수요에서도 확인된다. 맨해튼 상업지구 주변 거주지역인 그리니치빌리지의 올해 4월 기준 임대료 중간값은 2019년에 비해 30%나 상승했다. LA의 거주지역 브렌트우드의 주택 임대료 중간값은 63%나 뛰었다.

## 보행자 감지해 자동 정차하는 브레이크 3년 내 의무화

3년 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에는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 의무화 된다.

지난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전날 이런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장치다. NHTSA는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360명 줄이고 부상자도 2만4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도로에서 작년에만 거의 4만3천명이 사망하는



▲ 한 자동차회사의 AEB 테스트 장면. 사진=motortrend.com

등 지난 10여년간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증가했다. NHTSA는 자동차 업계에 AEB를 설치할 시간을 3년 주고 이후 새 기준을 완전히 맞출 때까지 4년을 더 줄게 확이다.

NHTSA가 이번에 공개한 새 기준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 시속 50마일로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시속 62마일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

피트 부티지 교통부 장관은 "승용차와 트럭에 AEB를 의무화하면 우리가 도로에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날말퍼즐 정답

		1	염	기	2	성		3	착	시
	4	식	탐		5	주	6	인	공	
		용						상		
7	주	유	8	소		9	집	착		10
	최		11	배	장		12	의	13	식
			치						습	
		14	반	기	15	문		16	교	관
17	도	박		18	명	경	대			